



광주시향

체코·오스트리아로...창단 첫 유럽투어

광주시향 하반기 공연 일정

광주시향교향악단(이하 광주시향)이 창단 41년만에 첫 유럽투어에 나선다. 또 세계적인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규와 광주 문예회관·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 협연하며 명작 시리즈, 발레·재즈·연극 등과의 협연 무대, 뮤직 도슨트와 함께하는 친절한 클래식 등 다채로운 컨셉으로 클래식 팬들을 만난다.

광주시향이 3월 2017년 하반기 공연 일정을 발표했다. 하반기에는 7월 열리는 '체임버 나잇:악기의 반란'을 시작으로 총 13개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유럽투어다. 광주시향은 오는 10월20일부터 28일까지 체코와 오스트리아 2개국을 방문할 계획이다. 김홍재 상임지휘자와 80여 명의 단원들은 최성환 곡 '아리랑환상곡',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4번',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4번'을 선보일 예정이다.

협연자는 빈 출신 피아니스트 고를리프 알리쉬(베를린 예술대 피아노과 교수)다. 빈 필하모닉 관현악단, BBC 교향악단 등과 협연했고 주세페 시노폴리, 데니스리셀 데이비스 등의 세계적인 지휘자들과 호흡을 맞췄다. 스트라빈스키 어워드 1등, 킨 엘리자베스 콩쿠르 입상자인 그는 2012년 스타인웨이 아티스트로 지명되기도 했다.



김홍재 상임지휘자



피아니스트 알리쉬



지휘자 유진 콘

브루크너 하우스 초청으로 10월 유럽 2개국 방문

7월 20일 시립발레단과 '춤추는 클래식' 협연도

공연은 10월22일 체코 프라하 스메타나홀, 25일 오스트리아 린츠 브루크너하우스에서 2차례 열린다.

이번 유럽투어는 브루크너 하우스의 공식 초청으로 성사됐다. 지난해 6월 창단 40주년을 맞아 일본에서 개최한 기념연주회가 이번 유럽투어의 씨앗이 됐다. 당시 객원지휘자였던 김홍재 현 상임지휘자의 지휘로 선보인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4번' 공연 영상을 본 브루크너 하우스가 정식 초청장을 보내온 것이다. 브루크너 하우스는 대관료 등 공연 관련 비용과 현지 홍보비 일체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4번' 연주를 요청했다.

광주시향이 무대에 서는 스메타나홀은 1259석 규모로 매년 '프라하의 봄 음악제'가 열리는 곳이다. 또 예술과 문명을 품은 도시, 린츠를 대표하는 브루크너 하우스는 오스트리아가 자랑하는 작곡가 브루크너 탄생 150주년을 기념해 건립했다.

유럽 투어를 앞두고 10월 18일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프리뷰 콘서트'를 통해 광주시민을 만날 예정이다.

7월 20일 열리는 '춤추는 클래식'(지휘 김영연 상임부지휘자)은 최은규의 해설, 광주시립발레단이 함께하는 무대로 포레의 '파반느', 피아졸라의 '리베르탱고', 차이코프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중

'꽃의 왈츠'를 만날 수 있다. '여행이 음악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9월 21일·김홍재 지휘) 공연에서는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돈주앙'과 멘델스존의 교향곡 4번 '이탈리아'가 연주되며 플루티스트 유키 고야마가 모차르트 '플루트 협주곡 D장조'를 협연한다.

11월 24일에는 바이올리스트 이성주(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협주곡 D단조'를 협연하며 브람스 '교향곡 1번'도 연주된다.

그밖에 청소년 음악회 '클래식이 정말 좋아요-바로크 음악 편'(9월 30일), '클래식 재즈를 만나다'(12월 7일) 등도 예정돼 있다.

11월 15일 열리는 '위대한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 10주년 콘서트 월드 투어 인 광주'는 세계적인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규가 협연하는 무대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등에서 지휘봉을 잡은 유진 콘이 함께하는 공연으로 테너 라메 라하, 바리톤 곶이현이 함께 한다. 레퍼토리는 '사랑의 묘약' 중 '지금 나를 비웃고 있겠지만', '라라', '그라나다' 등이다.

올 마지막 연주회는 12월 19일 열리는 송년음악회다. 소프라노 강혜정, 테너 하석배가 함께하며 비제의 '카르멘 모음곡' 등을 만날 수 있다.

문의 062-613-8237.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레

요즘 부산문화재단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달 안에 조사와 연구를 담당하는 전담부서 신설 등 조직개편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설립된 부산문화재단은 2월 8일 체제에서 2015년 1월 2분부 8팀으로 조직을 개편해 운영중이다.

부산문화재단이 조직개편을 추진해 온 것은 지난해 12월 유종복 선임 대표가 취임하면서부터. 유 대표는 문화재단의 연구조사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청사진을 제시해 지역예술계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문화생태계에 관한 연구가 뒷받침되

고 궤를 같이 하기 위해서는 부산시의 문화컨트를 타워인 문화재단의 전문성과 협치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어디 부산뿐이겠는가. 서울, 인천, 대구, 대전 등 전국 지자체들은 새 정부의 문화정책과 지역 분권에 맞는 협치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 시 산하기관인 문화재단의 역할을 키우는데 팔 걷고 나섰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문화수도 표를 표방한 광주는 너무도 한가(?)하다.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기관인 광주문화재단 수장을 6개월째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문화재단 대표 공석 언제까지

지 않으면 지역 현실과 동떨어진 문화정책 패러다임이 바뀌는 '막중 전시성 사업이나 정책이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또 다른 과제는 현재 임시조직인 '청년문화팀'을 정식직제로 개편하는 작업이다. 부산문화재단은 지난 2015년 '부산시 청년문화 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라 전국에선 처음으로 사업수행을 위한 '청년문화TF팀'을 발족했다. 지역 청년예술인들의 역의 유출을 막고, 이들이 부산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자는 취지였다.

실제로 부산시는 청년문화육성을 목표로 2015년부터 매년 30억~40억 원씩 5년간 218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문화팀이 임시기구인데다 시의 사업을 받아 진행하는 역할에 그치지 보니 청년 예술인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조직개편의 근본적인 배경은 자율·분권·협치를 슬로건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의 문화정책과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다.

예술인 복지, 문화예술교육 확대, 생활 속의 문화 등 정부 청사진

문화정책 패러다임이 바뀌는 '막중 전시성 사업이나 정책이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문제점 문화재단 대표의 공백이 쉽게 해결될 기미가 없다는 점이다. 2차례의 공모가 무산된 이후 임원추천위원회(추천위)를 구성했지만 지난달 임원추천위원 전원이 일괄사임하면서 지금까지 추천위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현재 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광주시 문화정책실장 역시 최근 부하 직원의 산하기관 갑질 논란 등 내부문제가 불거져 조직 추스리기에도 벅찬 상태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내년 지방선거때까지 대행체제로 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대, 협치와 분권은 문화계의 화두가 됐다. 시 문화행정의 협치 창구인 광주문화재단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그리고 그 첫번째는 문화재단을 이끌어갈, 역량이 있는 대표 선임일 것이다.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광주전남작가회의 '오월인문학' 강좌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 10회

문학예술작품을 매개로 한 인문학 강좌로 5·18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해온 광주전남작가회의(회장 박관서)가 '오월인문학' 강좌를 개설했다.

광주전남작가회의(회장 박관서)는 5일

부터 총 10회에 걸쳐 매주 수요일(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 프로그램실에서 '문화예술작품으로 읽는 미시적 5월의 역사' 강좌를 진행한다.

이번 강좌는 시와 소설, 미술, 음악, 연극, 영화 등 다양한 장르에 나타난 오월광



조진태 전 회장

주와 그로 인한 절망과 고통, 헌신과 사랑, 희망과 기쁨을 살펴보는 시간이다. 강의는 조진태 전 광주전남작가회의 회장이 맡는다. 5일에 열리는 첫 번째 강좌는 '오월의 문화예술'로 오월 인문학이란 무엇인가를 성찰하는 시간이다. 문화예술 작품에 드

리워진 오월의 의미와 오월 문화예술의 현황을 들여다본다.

향후의 강좌도 다양한 관점에서 5·18을 탐색하고 공동체성을 숙고한다. 사건과 관계를 통해 살펴보는 오월 이야기, 캐리커와 스토리는 읽는 오월 현장 등이 진행되며 10회 강좌에서는 국군통합병원 등 5·18사적지 답사도 예정돼 있다. 문의 062-523-7830.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8일 금남공원에서 찾아가는 정율성 음악회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8일 오후 6시 광주시 금남근린공원 야외무대에서 2017정율성음악축제 '찾아가는 정율성 음악회' 5회차 공연을 개최한다.

정율성 선생은 일제강점기인 1914년 광주에서 출생, 18세에 중국으로 건너가 최전선에서 항일독립운동을 하면서 '연안송', '팔로군 행진곡',

'연수요' 등을 작곡해 중국 혁명음악의 대부로 추앙받고 있다.

이날 공연에는 소프라노 박수연·박희현·구성희, 바리톤 김제선, 마데라 앙상블이 출연해 '연안송', '연수요', '매화를 읊노라', '밀밭의 여인', 등 정율성의 음악을 선보인다. 문의 062-670-7467. /박성천기자 skypark@

2층 상가매매 (CGV 광주용봉점)

카페(인테리어완료), 병원, 미용실, 학원, 당구장, 탁구장, 체육관 등

- 전용 289㎡ (약87평) 분양면적 약150평
- 현재 카페 인테리어(160㎡) 및 공실(129㎡)
- 매매 7억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원

락 볼링장 매매 (CGV 광주용봉점)

최신인테리어 락 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 분 유망사업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원

문의 010-3647-4747

상기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가 입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참숯구이 돼지갈비 전문점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솔향기 맑은터는 풍향동 전통음식 그리고 혁신도시에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연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참숯구이 돼지갈비 13,000원 (눈,비오는날 9,900원)

-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